

Markdown

조사 결과 요약

조사 내용

기구는 5개 주요 전투 지역에서 라티노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조사했다: 플로리다 외에도, 오하이오, 콜로라도, 네바다, 노스캐롤라이나의 히스패닉 유권자들이 포함되었다. 조사는 9월 15일부터 9월 19일까지 실시되었다.

히스패닉 지지율

이번 조사에서도 클린턴의 히스패닉 지지율은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과 2012년 플로리다에서 승리할 때 받았던 지지율 마진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. 2008년 오바마는 히스패닉 지지율의 57%를 받았고, 2012년 선거에서는 60%를 받았다.

주별 지지율 변화

이번 조사에 포함된 다른 4개 주에서도 같은 양상이 나타났으며, 히스패닉 지지율이 가장 큰 감소를 보인 주는 네바다였다. 클린턴은 현재 네바다에서 트럼프(25% 지지율)에 비해 54%의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, 2008년 오바마는 76%의 히스패닉 지지율을 받았고, 2012년에는 71%를 받았다.

전망 및 해석

"히스패닉은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 집단 중 하나입니다. 공화당은 히스패닉 유권자들로부터의 성과가 부족한 상태로 계속 갈 수 없으며, 일부 전투 지역 주들을 승리할 현실적인 가능성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."라고 FAU 정치학 교수이자 이니셔티브 연구원인 케빈 워너 박사가 말했다. "공화당이 이러한 큰 마진을 좁히지 못한다면, 선거 지도는 점점 더 공화당에게 어렵게 될 것이다."

각 주의 히스패닉들은 클린턴이 그들이 조사받은 모든 주요 선거 문제를 더 잘 처리할 후보라고 보고 있다.

HTML Table (if applicable)

There is no table in the provided text.